

불교 다문화 정책 20년, 아직도 '걸음마'

불교사회연구소, 다문화 정책 연구 보고서 지적

지난 10년 새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고, 이는 한국 인구 중 2.9%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2030년에는 체류 외국인 수가 320만 명(인구 대비 6.1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한국불교의 다문화 정책은 낙제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계종 정책연구기관인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최근 '다문화 사회와 한국불교의 역할'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정책 개발과 불교 등 각 종교별 지원시설 비교, 교구별 이주민 현황 등을 정확하게 수치화한 첫 연구 자료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보고서가 지적한 현재 한국불교 다문화 정책의 가장 걸림돌은 불자

들의 다문화?이주민들에 대한 편견이다. 실제 보고서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조사에서 불자의 5.5%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카톨릭과 개신교는 각각 1.2%와 3.6%에 그쳤다.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대답한 카톨릭 신자는 45.3%, 개신교인 39.4%였지만, 불교는 38%에 불과했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인식도 저조했다.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답변만 상회할 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친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등의 전반적인 답변에서는 이종교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불교계 다문화정책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불교계의 이주민 지원 활동의 시작은 카톨릭과 개신교와 비슷한 1990년대 초반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천지

차이다. 국내 주요 종교 중 가장 많은 이주민 단체와 시설, 활동가를 보유한 곳은 개신교로 대략 600여 곳으로 추정된다. 카톨릭은 현재 주교회의 산하에 국내 이주사목위원회를 두고 중앙교단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최근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

불교계 이주민 지원 활동 90년 초 시작... 29곳뿐

개신교·천주교 700곳 이상

불자 결혼 이주민 중 10%

기독교로 개종 대책 시급

불자 다문화 지수 저조 문제

교구별 정책 대안 마련 필요

주고 있다. 그 수도 146곳으로 공동체, 노동상담, 가족 지원, 어린이집, 의료 등 각 분야에 고루 걸쳐 있다.

반면 불교는 총 29곳으로 이는 개신교의 1/20, 천주교의 1/5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대해 불교사회연구소는 "이주민 지원 활동에 대한 중앙교단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존재감을 이끌어 줄 실행활동이나 친목모임이 불교계는 거의 전무하다.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결혼 전 종교가 불교였던 이주민은 24.4%였지만 결혼 후에는 14%로 10%가량이 개종을 했다. 이들 10%의 원인은 대부분 개신교와 카톨릭으로 갔다.

이런 인식과 시설 부족의 여파는 당장 결혼 이주민 개종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결혼 이주민 중 적지 않은 수가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불교국가 출신이지만 이들을 이끌어 줄 실행활동이나 친목모임이 불교계는 거의 전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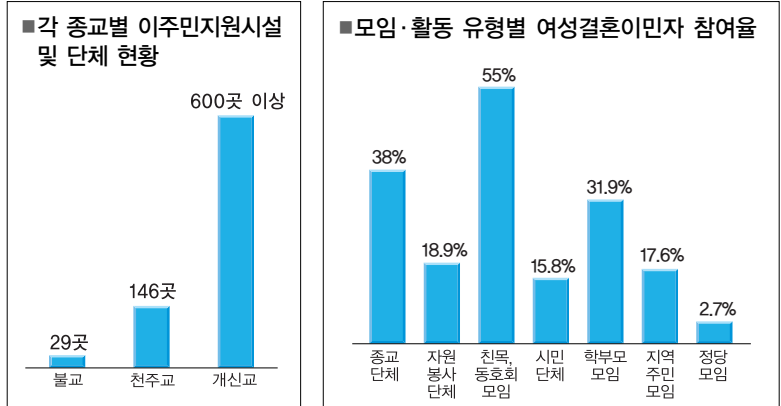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결혼 전 종교가 불교였던 이주민은 24.4%였지만 결혼 후에는 14%로 10%가량이 개종을 했다. 이들 10%의 원인은 대부분 개신교와 카톨릭으로 갔다.

실제 결혼 전 개신교를 믿는 이주민은 5%, 카톨릭은 19.8%였지만, 결혼 후에는 이주민의 종교는 개신교 15.1%, 카톨릭 23.3%로 바뀌었다. 대부분 개신교로 종교를 개종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고서는 중장기적 10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사회운동과 종단 차원으로 분류된 이들 과제는 불자들의 다문화 수용 인식 개선을 비롯해 이주민 지원 시설 확대 △교구별 이주민 현황에 따른 지원 정책 △이주민 실행활동 지원 △승려·신도 교육 과정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용 반영 △이주민에 대한 종단차원의 명문화된 선언 △종단 다문화 정책의 마스터 플랜 구성 등이다.

특히 보고서는 각 교구별 이주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25개 교구별 사찰 2교구분사 화성 용주사 관할지역에 가장 많은 이주민 38만 680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25교



■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과 후 종교

구분	종교	빈도	백분율
결혼 전	불교	21	24.4
	개신교	5	5.8
	가톨릭	17	19.8
	통일교	26	30.2
	무교	14	16.3
	기타	3	3.5
계	86	100	
결혼 후	불교	12	14.0
	개신교	13	15.1
	가톨릭	20	23.3
	통일교	28	32.6
	무교	12	14.0
	기타	1	1.2
계	86	100	

구분사 남양주 불전사 역시 19만 5041명이 살고 있어 수도권 지역에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구성비를 봤을 때 결혼이주민 비율이 30~40%에 달하는 제21교구분사 송광사, 제24교구분사 선운사, 제16교구분사 고운사, 제17교구분사 금산사 등 7곳에는 결혼이주민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국내 체류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 증가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이주민지원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불교문화권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종단 차원의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t079@hyunbul.com



끝나지 않은 아픔, 당신의 뒷 위로합니다

14일 이음너 할머니 노제 열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대표 월주)과 고양시는 8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고양시 시민 진혼제와 지원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 추구를 위한 범 시민 진혼제와 지원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음너 할머니를 위한 추모마당을 열었다.

이날 진혼제에 앞서 최성 고양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뒤 13만 명의 서명부 사본과 서한문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최근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에 일본 정계의 지도자들이 망언을 일삼아 고양시민 13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글=이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사찰음식 효능과 수행의 상관관계는

문화사업단·월정사, 10월 단기출가서 우수성 연구

출가학교 50명 대상으로 동국대 의료원 임상연구

사찰음식을 먹으며 수행을 하면 내 몸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웰빙 음식의 선두 주자인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조계종 제4교구분사 월정사(주지 정년)·동국대 의료원(원장 이진호)은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제

38기 입교자 50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건강 증진 우수성 연구'를 실시한다.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진행되는 한 달간의 입교기간동안 출가학교 참가 학생들은 동국대 사찰음식연구소가 제공한 식단을 바탕으로 식사가 제공되며, 동국대의료원이 건강상태를 체계하게 된다. 검사항목으로는 혈당과 간기능, 콜레스테롤, 체지방 검사 등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입교 전과 퇴교 후의 신체 변화를 점검한다.

지난 7월부터 추진된 연구는 내년 1월 중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발견되면 계절의 영향이 큰 사찰음식의 특성을 반영해 4계절별로 연구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식단 개발에도 연구 성과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한편, 사찰음식과 수행을 통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월정사 제38기 단기출가학교는 오는 9월 9일까지 입학생을 모집한다. 김유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

음식팀장은 "사찰음식이 웰빙이지만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찰음식의 표준 식단과 템플스테이 모범 식단, 일반 보급 식단을 만드는 데에도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33)339-6616

신종일 기자

954호 INDEX



종합 생명평화정진 500일 성과 8·15맞이 불교계 평화행사 잇달아

신행 선센터, 첫 청소년 영어템플스테이 불교계 첫 B-By대회 열린다

백중 맞이孝특집 31

강의실 중계 - 정우 스님 8

학술·문화계 9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한글대원 선사

대주선사어록 강설

상하

한국불교의 근간!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돈오선(頓悟禪)의 정맥(正脈)

우리 시대 최고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지재한 강설!

간화선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국불교!

그 뿌리는 돈오(頓悟)에 있고,

돈오는 『대주선사어록』에서 출발한다.

(상권) 돈오입도요문론 520면 32,000원

(하권) 제방문인참문 280면 18,000원

수행자들을 위한 지혜의 눈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1998년 11월 동안거부터 2000년 2월 동안거까지 한암대원 선사에서 진행하신 소림법문을 정리한 책이다. 『반야심경』은 270자에 불과하지만, 반야를 바른 눈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주는 놀라운 경전이다. 이 책은 반야심경의 첫머리인 '마하'로 시작하여 마지막 '모지사바하' 그리고 후송에 이르기까지 선 수행의 핵심을 '반야심경'과 무구자 도인의 주해에서 찾아낸 것이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선지식 중 한 명으로 승광하는 한암대원 선사의 강설까지 덧붙였다. 무구자 도인의 주해는 속경에 실린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또한 그 원문에 있는 오묘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주를 통해 상세히 밝혀 선수행의 요체에 다가가도록 이끌어준다.

무구자 도인 주해 반야심경

한암대원 선사 강설 456면 | 22,000원